

환경오염 주범 영농쓰레기 수거

군산농기센터·생활개선회 자발적 봉사활동 10여년 걸쳐 400여톤 수거... 지역사회 귀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와 군산시생활개선회(회장 임순옥)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쓰레기 70톤을 수거해 군산지역 농촌 환경 파수꾼임을 거듭 입증했다.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군산시생활개선회의 영농폐자재 수거사업은 농촌지역의 들녘에 버려진 영농폐자재들을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 수거하여 자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총 400여톤을 수거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생활개선회는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과 농약봉지, 시설하우스 철거용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사료용 폐비닐 등 4품목을 선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이번 수거활동에는 마을별 전담 수거팀을 조직

하고 회원들의 노력을 이용해 시설하우스와 축산농가 영농폐비닐, 들녘에 방치된 멀칭 폐비닐 등을 수거해 1톤 트럭 250대 분량의 영농폐자재를 모았다.

이러한 폐자재들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임시 집하장으로 모여 품목별로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로 전량 인계 후 자원화 과정을 거친다.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임순옥 회장은 "봉사의 팍팍함을 함께 흘린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진과 같이 공동수거를 통한 지역의 환경보전은 물론 군산농산물의 깨끗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창호 농기센터 소장은 "영농철이 지나면 농약병, 폐비닐 등이 땅에 묻히거나 태워져 토양은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농촌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시생활개선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쓰레기 70톤을 수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쓰레기의 자원화 차원에서 영농폐자재 수거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생활개선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원들은 영농폐자재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 농약 공병과 농약봉투 등 폐자재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고 있으며, 수거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학금, 수재의연금 전달, 어려운 이웃돕기 등 더불어 사는 자원봉사활동에 뜻깊게 사용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국체전 성공 개최 '카운트다운'

익산시, 내년 10월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돌입

익산시는 13일,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고 전했다.

종합상황실은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총괄반, 시민의식 업그레이드반,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반, 도시환경 및 친절·질서유지반 등 총4개반(31명)으로 구성되며,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는 2018년 10월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매일 15일 종합상황실장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익산사랑운동, 시민서포터즈 활동 운영 및 지원, 각종 문화체육행사 추진, 도시환경 정비 친절·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철모 부시장은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2018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영원 기자

찾아가는 행정복지 서비스 실천

군산 나운2동, 간이부스 설치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배부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천규)에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주공 4차아파트 내에 간이 부스를 설치하고 2017년 3분기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분을 배부했다.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서비스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당 종량제 봉투 20리터 9매를 분기별로 교부하는 서비스로써, 시에서는 8,051명을 대상으로 총 72,495매를 매 분기별로 배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군산시의 살림규모는 708억원이 증가한 1조 2,198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70억원이 증가한 1,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품차부품 연구개발(총 678억원) 및 바이오폴리나트 기술개발(총 779억원) 등의 사업으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보다 의존재원 비중은 높은 재정구조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군산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거동이 어렵거나 미평한 이동 수단이 없는 노인 및 장애 주민으로 무상봉투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종량제봉투를 배부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주공4차아파트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아파트까지 나와서 종량제 봉투를 나눠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송천규 동장은 "앞으로도 동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 펼쳐 모두가 행복한 행정복지의 기를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살림살이 한눈에 본다

전년도 지방재정운영 결과 공시

군산시가 2016년도 지방재정운영의 결산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공시 자료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재정공시는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결산규모, 재정여건, 주요예산집행결과 등 10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군산시의 살림규모는 708억원이 증가한 1조 2,198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70억원이 증가한 1,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품차부품 연구개발(총 678억원) 및 바이오폴리나트 기술개발(총 779억원) 등의 사업으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보다 의존재원 비중은 높은 재정구조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군산의 살림살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개청 후 첫 해경의 날 기념식 개최

군산해경 직원 150명 새 각오·목표 다져

정부조직 개편으로 제자릴 찾은 해양경찰이 예년 네 번째이자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본서(本署) 3층 대강당에서 소속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채광철 서장을 비롯해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본부 지부 김삼겸 협회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등 유관협력기관과 경유회원이 참석해 자필 빛냈다.

식순에 따라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이번행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안전한 바다를 꿈꾸는 해양경찰의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담은 행사가 진행됐다.

채광철 서장은 해양경찰청장 축사를 대신 읽은 뒤 "사람으로 따지면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을 넘긴 해양경찰이 국민의 소리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3층 대강당에서 소속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를 겸허하게 받들고 국가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며 "해체와 독립의 과정에서 우리의 과오를 잊지 말고 다시 거듭나는 첫 번째 기념일로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번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새만금파출소장 전대천 경감의 대령 표창을 3013함 이재홍 경위가 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을 해양치안협의회 고병수 사무국장이 해양

수산부장관 감사장 등 수여 받은 등 총 61명이 표창과 감사장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해양경찰의 날은 1953년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가 발족한 12월 23일이지만 2012년부터 동절기 해양사고 대응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영토제도(배타적 경제수역)가 발효된 날을 기념해 9월 10일로 옮겼다.

/군산=김판곤 기자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 전문가 머리맞대

군산, 달달포럼 3차 진행

청소년자치연구소(소장 정건희)는 16일 오후 3시, 청소년자치공간 달달포럼(군산시 월명로 475-1)에서 '청소년 경제 관점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 달달포럼 3차를 진행했다.

본 포럼은 군산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교육과 진로, 복지와 안전, 문화, 경제 5가지 영역별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 및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포럼의 주된 내용은 환경목 부위원장(청소년진로지원위원회)의 개최 및 정건의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의 사회로 '청소년 경제'라는 주제로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의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과 지역정책에 관심있는 성인들은 청소년자치연구소(www.youthauto.net)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자치연구소(063-465-8871)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동화 부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과 지역사회 성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다. 이번 포럼에서 많은 이들이 청소년 경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깨우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